

2008년 7월 2말씀

부모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개성대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해외로 보내서 일하게 할 것입니다. 해외에 거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해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게 할 것입니다. 선교회에서도 지원해 주고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해외에 있어서 가끔 한국의 지역이 다 생각이 안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 도시가 어디에 있냐고’ 그러다 보면 기억이 납니다. ‘아 거기다 교회가 있었는데 내가 갔었는데’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세계 청소부 아저씨입니다. 내가 남미로 여기 저기 세계를 돌아다녔을 때 내가 방문한 나라는 내가 가서 청소를 해서 다 깨끗해졌습니다. 미국도 2002년에 가서 처음으로 청소를 했는데 처음엔 일이 너무 많아서 못 하겠다 생각했습니다.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깨끗해졌습니다. 그냥 보고는 못 지나칩니다. 싱가포르 이 깨끗하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땐 청소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 갔을 때도 공항에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결국 내가 다녔던 나라들은 다 깨끗해졌습니다-574. 청소 하는 건 끝도 한 도 없습니다.

캠퍼스는 내가 나가기 전에 한 명씩은 해야 합니다. 왜 그걸 못합니까? 나는 하루에 교회 하나씩은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하로 일 했을 때, 아주 실패 했을 때 그런 것입니다. 청중집회 한번하면 거의 다 전도 합니다. 투망에 잡아넣는 것입니다. 그물만 내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옛날 베드로도 하루 3천 명씩 했는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베드로 시대 때 캠퍼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죽을 때 거꾸로 매달려 죽었지 않습니까? 자기 선생은 바로 가도 자기는 거꾸로 간다고 하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게 인생 산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성당을 지어도 멋있게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신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름 방학 때 한 번 멋지게 해보십시오.

프랑스 옆의 나라 스페인은 한 개의 캠퍼스에 학생 수가 30만 명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한 대학교에 30만 명이 있습니다. 거기 학생 하나 전도해서 전도하는 사명주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끼리 할 것입니다. 한 명만 해놓고 오면 저희들끼리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프랑스, 일본, 서독 애들도 많이 옵니다. 해외 캠퍼스회원 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들도 우리 행사를 보러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옛날에 포항지역 회원들이 내가 전국순회 할 때 한번만 와달라고 했는데 내가 못 간다고 뿌리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선생님을 볼 수 있냐’고 소리치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나는 몰랐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못갈 줄 몰랐습니다. 포항회원들에게 안부 전해주십시오. 그때 내가 못가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때 순회 할 때 다른 지역은 다 순회했었고, 86군데나 다녔습니다. 그런데 포항만 못 갔습니다. 나를 막 끌고 가는데 내가 안 갔습니다. ‘끝도 없다. 나 거기 가면 끝없어.’ 했더니 그러면 나중에 꼭 와달라고 했습니다. 곧 만날 줄 알았는데 세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 당시 애들이 지금은 커서 목사도 되고 했습니다.

캠퍼스 지도자들은 성균관 대 고대 그리고 한성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내가 옛날에 서울 와서 섭리 시작할 때 한성 대 근방에 있었습니다.

차 조심하고 사람도 조심하고 하십시오. 한국에 와서 얼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해외 각 나라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지쳤었습니다. 내가 설교를 30년 동안 2만 번 이상 했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헛바닥이 없어진 것 같다고 느꼈을 정도였습니다.

한창 섭리를 펼 때 그렇게 지쳐서 일을 했었습니다. 과로로 죽을 뻔도 했습니다. 몇 번 죽었습니다. 옆에 사람들도 없었고 사람이 있었어도 내 상태를 잘 몰라 봤습니다. 외국 애들이 볼 때는 ‘피곤하니까 자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니까? 회원들도 40-50대 되는 부모들도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도록 하십시오.